

## 명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9년 10월 어느날 삼지연들쪽음료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멋있다고, 삼지연에 들쪽음료공장을 꾸리기 정말 잘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의 제품창고에도 들리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제품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제품창고에 공장에서 생산한 들쪽제품들이 짝 차있다고, 마치 기관단총의 탄창에 총알이 빼곡이 채워져있는것 같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차례질 식료품들의 맛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도 세심히 마음쓰시며 수행한 일군들에게 제품들을 하나씩 맛보고 어떤가 평가해보게 하시였다.

이윽하여 제품을 맛본 한 일군의 이야기를 기쁨속에 들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삼지연에서는 들쪽제품을 특제품, 명제품으로 만들어 완전히 독점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삼지연의 이름을 날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